

# 작가약력 및 작품해제 Catalogue Entries

**2000s**



4 김수범  
5 김을  
6 박기원  
7 박혜성  
8 배종헌  
9 송상희  
10 임동식  
11 임민욱  
12 정수진  
13 정정엽  
14 최진욱  
15 최민화  
16 함양아  
17 홍명섭

18 Kim Subeom  
19 Kim Eull  
20 Park Ki-won  
21 Park Hyesung  
22 Bae Jong Heon  
23 Song Sanghee  
24 Rim Dongsik  
25 Lim Minouk  
26 Chung Suejin  
27 Jung Jungyeob  
28 Choi Gene Uk  
29 Choi Minhwa  
30 Ham Yangah  
31 Hong Myung-seop

**김수범**(1964-)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와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주 민중미술 동인 ‘보름코지’의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했고, 이후 4·3미술제와 탐라미술인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4·3미술아카이브: 기억투쟁 30년》(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7), 《기억의 파수》(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23) 등 관련 전시에 꾸준히 초대되었다. 판화, 회화,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역사적 사건과 일상의 기록을 수집하고 재구성하여, 개인의 기억과 공동체의 기억이 축적되고 공유되는 방식을 탐구해 왔다.

〈미술관 찾는 사람들〉(2005)은 작가가 미술관과 갤러리를 다니며 촬영한 관객과 전시장 풍경을 기록한 작품으로,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한 《점점 발전소》(2005)와 《대학로 100번지》(2009)에서 선보였다. 작가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간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기획전들을 비롯하여, 성능경, 민정기, 신학철 등의 개인전을 방문한 관객과 전시장 풍경을 캠코더로 기록했다. 기록한 영상들은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별도의 아카이브 공간에 비치되었으며, 관객이 이를 직접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품을 고정된 감상의 대상이 아닌 자유롭게 선택하고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면서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했다.

**김을**(1954-)은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원광대학교 금속공예과와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귀금속디자인 석사를 마쳤다. 금속공예와 주얼리 디자인을 거쳐 1980년대 중반 작가로 전향한 후 <자화상>, <혈류도> 연작 등을 전개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드로잉을 바탕으로 회화, 오브제, 사진, 피규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왔다. 《Running Machine》(백남준아트센터, 2013), 《올해의 작가상 2016》(국립현대미술관, 2016) 등에 참여했으며, 2018년 제30회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했다.

<지적도 등본>(2002)과 <임야도>(2002)는 아르코미술관 기획전 《구름》(2004)에서 선보인 설치 작품 <남촌리 산 113번지>(1996-2004)의 일부이다. 이 작품은 가족의 선산이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가족사의 흔적과 삶과 죽음의 터전을 하나의 풍경으로 제시했다. 작가는 개인의 가족사에서 출발해 생과 사, 보편적 실존에 대한 사유로 그 의미를 확장한다.

한편 작가는 드로잉을 태도이자 이념으로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신체적 행위인 ‘망치질’에 비유한다. 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깨어남’을 통해 드로잉의 본질과 이치를 이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르코미술관 기획전 《드로잉 에너지》(2006)에 출품한 <드로잉하는 기계>(2006)는 이러한 관점을 보여준다. 관객이 페달을 밟으면 망치가 움직이고, 유리창 너머로 내부 미니어처의 움직임이 드러난다. 이 작품은 드로잉을 신체의 능동적 행위와 사물의 운동이 결합된 과정이자,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 에너지로 제시한다.

**박기원**(1964-)은 충북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13회 중앙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고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참여했으며,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간과 재료의 관계에서 비롯한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유도하는 설치 작업을 지속해 왔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제2기 서울현대미술제 창립전》(1991),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 도시, 그 삶의 공간》(1993), 《구름》(2004)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2006년에 개인전 《박기원: 파멸》을 개최했다.

작품 〈더운 곳〉(2004)은 아르코미술관 기획전 《구름》(2004)에서 선보인 대형 설치 작품으로, 소장품은 설치 도면 드로잉과 전시에 사용된 재료를 담은 아크릴 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당시 벽면과 천장 전체를 황금빛의 투명한 비닐로 덮었던 이 작품은 미술관 공간이 갖는 특수성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인 비닐을 이용하여 신체의 이동과 공기의 흐름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를 작품의 요소로 치환하였다. 이렇듯 그의 설치 작업은 공간과 재료, 그리고 신체와의 관계성을 통해 공간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공간에 대한 감각과 경험의 방식을 변화시켜왔다.

**박혜성**(1968-2019)은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98년 갤러리현대 개인전에서 마술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OFF & ON》(1991), 《쏘쏘쏘》(1992)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또한 아르코미술관의 《이미지 미술관》(2000), 《쌍쌍》(2005) 등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2000년 제20회 석남미술상을 수상했다.

작가는 마술과 퍼포먼스를 조형 언어로 활용해 시각적 환영과 관객의 경험을 탐구했다. 다양한 매체의 융합형 작업을 전개한 작가는 마술 장치와 설치,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현실과 재현, 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질문하는 데 주목했다. 또한 관객의 참여와 지각 과정을 작품의 일부로 수용하며 미술의 소통 방식을 확장했고, 젠더와 소비문화 등 동시대 사회의 문제를 다루었다.

〈골콘다〉(2000)는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 대표작 〈골콘다〉(1953)와 동명인 영상 작품으로, 제목뿐 아니라 작품의 내용 역시 마그리트의 작업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파란 하늘 아래 종절모를 쓴 남자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과 달리, 작품 속 주인공은 검정 유광 바디수트를 입은 여성들이다. 2분 4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체불명의 여성들은 서울 시내를 활보하다가 어느 순간 하늘 위로 도약하며, 현실의 도시 공간에서 초현실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배종현**(1969-)은 대구에서 태어나 가천대학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개인전 《배종현: 네상스(Naissance)》(대구미술관, 대구, 2016)를 개최했으며, 《Korea Tomorrow》(성곡미술관, 서울, 2015), 《제11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0) 등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고 2014년 고암미술상을 수상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시간의 화살—엔트로피》(2000), 《드로잉 에너지》(2006)전에 참여했으며, 개인전 《미장제색》(2019)을 개최했다.

작가는 일상과 주변 환경에서 발견한 사물과 상황이 우리 사회와 맺는 관계성을 토대로 작업해 왔다. 초기에는 텍스트, 드로잉,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일상의 경험을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시켰고, 최근에는 도시 환경에서 사라지거나 훼손된 자연의 흔적을 소재로 회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르코미술관 소장품 <콘크리트 농부>(2006)는 《드로잉 에너지》에 출품된 초기 작업으로, 작가가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옥상의 텃밭을 소재로 한 프로젝트이다. 작가는 주말마다 옥상 텃밭에서 오이, 고추, 토마토 등을 기르고, 농기구를 만들고 비료를 구입하며 농작물의 성장 과정을 기록했다. 작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밀집한 도시의 주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농경 활동을 영상과 드로잉, 오브제로 구현하여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송상희**(1970-)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개인전 《변강쇠가(歌) 2015: 사람을 찾아서》(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2015), 《자연스러운 인간》(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1) 및 다수의 단체전에 초청되었으며,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2008),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2017)을 수상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제20회 서울현대미술제》(1994), 《노미네이트전》(2005), 《트랜스POP: 한국 베트남 리믹스》(2007) 등에 참여했다.

작가는 역사와 사회 속에서 배제된 존재들의 희생과 폭력의 흔적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설화, 신화 등과 조합하여 영상, 설치, 사진,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로 구현해왔다. <푸른희망>(2004)은 월미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세 개의 상황을 담은 사진 작업으로, 첫 번째 사진은 월미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타국으로 잡혀간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어버린 망부석 설화에 관한 내용이며, 두 번째 사진은 한국전쟁 사진 아카이브 중 인천상륙작전 흑백 사진에 색을 입혀 확대 출력하여 1950년 9월 15일 새벽 월미도에 미군 함선들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표현했다. 세 번째 사진은 1970년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버스차장이 월미도 유원지를 배경으로 찍은 기념 사진이다. 세 사진 모두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보여주며, 여성에 대한 현실 인식과 상처를 지닌 인물을 설화, 전쟁 등 역사적 사실을 접목하여 독창적 시각 언어로 담아냈다.

**임동식**(1945-)은 충청남도 연기군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국립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자유미술학과를 졸업했다.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0), 《이끼를 들어올리는 사람》(가나아트센터, 서울, 2023) 등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대지의 시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21), 《제3회 제주비엔날레: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2022-2023) 등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다. 2020년 제5회 박수근 미술상을 수상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제1회 한국미술청년 작가회전》(1974), 《드로잉 에너지》(2006), 《대학로 100번지》(2009)전에 초대되었고, 임동식 개인전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2005)에서 회화, 드로잉, 아카이브를 통해 그의 작업 세계를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1981년 자연미술운동 그룹 ‘야투’를 창립하며 한국 자연미술의 흐름을 이끈 대표 작가로, 초기에는 야외 설치 및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고 유학 생활 이후 독자적 회화 세계를 구축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모색해 왔다. 자연을 단순한 재현의 대상이 아닌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회화와 드로잉,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명과 순환, 공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탐색했다.

2005년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의 출품작인 <고개속인 꽃과 마주한 인사>(2003)는 작가가 독일 함부르크 유학 시절 선보인 자연미술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1992년부터 회화로 발전시킨 동명의 연작 중 하나이다. 꽃과 마주해 인사를 건네는 행위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사와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표현했다.

**임민욱**(1968-)은 대전 출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거쳐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와 파리 제1대학교 팡테옹-소르본에서 수학했다. 개인전 《하이퍼 옐로우》(일민미술관, 서울, 2025)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전시에 참여했으며, 제7회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2007)을 수상했고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2》 최종 4인에 선정되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1990년대 이후 대두된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작업 경향을 주목한 시리즈 중 하나인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믹서&쥬서》(1999)를 비롯하여, 《구름》(2004),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2009)전에 참여했다.

작가는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조각,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기억과 사회, 정치적 구조 및 주변화된 존재와 목소리를 탐구해 왔다. 사실과 허구, 인간과 비인간, 기억과 망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감각과 서사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며 국내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9년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전에 소개된 〈롤링 스톱〉(2003)은 임민욱이 프레데릭 미송과 함께 결성한 피진기록(Pidgin Girok) 콜렉티브 활동 시기에 제작한 단채널 비디오 작품으로, 광주비엔날레 방문객을 위해 제작된 문화 가이드 책자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비디오로 제작한 것이다. 빠른 화면 전환과 음악적 리듬을 활용해 도시를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이미지를 재구성한 초기 비디오 작품이다. 근대화와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누락된 기억과 존재를 환기하며, 역사와 공동체, 기억의 문제를 탐구해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보여준다.

**정수진**(1969-)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예술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대구 시공갤러리를 시작으로, 아라리오갤러리, 갤러리스케이프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최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존재하는 형상계》(이유진갤러리, 서울, 2021)를 개최했다. 《두산갤러리 뉴욕 10주년 특별전》(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2019), 《떨어지는 눈》(북서울미술관, 서울, 2025) 등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믹서 & 주서》(1999), 《발견-오픈 유어 아이즈》(2003), 《이미지 연대기》(2008)에 참여하며 동시대 한국 회화의 실험적이고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는 작가로 주목받았다.

작가는 인간의 보이지 않는 의식 구조를 형상화하고 서로 다른 사물과 기호를 하나의 화면 안에 병치시키며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다층적으로 생성하는 다차원적 평면의 세계를 구축해왔다. 《발견-오픈 유어 아이즈》에서 선보였던 〈무제〉(2002-2003)는 그의 이러한 독창적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병과 상자, 인물과 동물 등 다양한 사물과 기호를 하나의 화면에 병치하여 현실과 상상을 교차시키고, 원근법과 현실의 질서를 벗어난 공간의 수많은 기호를 통해 감정과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드러낸다.

**정정엽**(1962-)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최근 《콩은 어디든 굴러간다》(스텔라갤러리, 서울, 2025), 《지구독대여자》(갤러리뫼, 서울, 2026) 등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 국내외 굵직한 단체전을 거쳐 최근 《경계 위의 그녀》(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26) 등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2006년 열린 개인전 《정정엽: 지워지다》에서 여성, 노동, 이주노동자, 멸종위기 생명체 등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가시화되지 못한 존재를 주제로 한 드로잉과 회화를 선보였다.

1980년대 미술운동 단체 ‘두렁’과 ‘갯꽃’에서 노동과 민중의 삶을 주제로 활동했으며, 이후 ‘여성미술연구회’와 여성주의 미술 그룹 ‘입김’에서 활동하며 여성의 삶과 노동, 생명 등을 작업의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유약한 존재의 저항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드로잉, 판화, 설치, 퍼포먼스 등으로 표현해온 작가는 곡식과 나물, 벌레, 동식물 등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작업의 소재로 삼아왔다.

아르코미술관 개인전에 출품된 〈박쥐〉(2006)는 당시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구한, 사라져가는 소수자와 존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 소외된 멸종 위기에 놓인 박쥐의 일부를 형상화한 것이다. 번지고 고이는 붉은 잉크를 통해 존재의 숨길 수 없는 지점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 작품은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감각을 환기한다.

**최진욱**(1956-)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회화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제16회 중앙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1985년 미국문화원에서 첫 개인전 이후 금호미술관, 일민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광주비엔날레-집행유예》(2002), 《자이트가이스트·시대정신》(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3) 등 주요 전시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앙가쥬망’, ‘레알리떼 서울’ 등 동인 활동을 기반으로 다수의 《앙가쥬망전》, 《레알리떼 서울》 정례전에 참여했으며, 《B35-’90초대전》, 《구름》(2004) 등에 초대되었다. 또한 개인전 《최진욱 전》(1996)과 《최진욱 개인전: Love is Real》(2005)을 개최했다.

작가는 1980년대부터 리얼리즘의 자장과 조건 안에서 주관적 감성과 조화를 이루는 회화로 동시대 사회와 일상의 풍경을 탐구해왔으며, 이를 통해 ‘눈앞의 사물을 감각적으로 리얼하게 그려내는 감성적 리얼리즘’의 독자적 세계를 구축해왔다. 〈232. 해수욕장—화실〉(2005)은 2005년 개인전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해수욕장 풍경과 작업실, 거울 속에 비친 화가의 모습을 하나의 화면 안에 중첩시켜 현실과 재현, 관찰자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최민화**(1954-)는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2017년 제18회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했으며, 개인전 《천 개의 우회》(대구미술관, 대구, 2018), 《Once Upon a Time》(갤러리현대, 서울, 2020)를 개최하고, 《시대유감》(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8-2020) 등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민중미술 계열의 연합 전시인 《전국민족미술인연합 창립기념전》(1995)을 비롯하여, 《공원 쉼표 사람들》(2003), 《트랜스POP: 한국·베트남 리믹스》(2007) 및 개인전 《최민화: 이십세기 연작》(2007) 등에 참여했다.

1982년부터 작가는 본명 대신 ‘민중은 꽃이다’라는 의미의 ‘민화(民花)’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사의 폭력과 사회적 모순, 민중의 삶을 표현주의적 필치와 강렬한 색채로 담아내는 회화를 전개했으며, 초기 〈부랑〉 연작과 1990년대 〈분홍〉 연작을 통해 사회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을 담아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삼국유사〉, 〈20세기 회화의 추억〉 연작 등을 통해 역사와 기억을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분홍—양아치〉(1993)와 〈마로니에공원 4〉(2003)는 모두 아르코미술관 전시 《공원 쉼표 사람들》에 출품된 작품이다. 〈분홍—양아치〉는 1990년대 〈분홍〉 연작의 일환으로, 시위 현장의 붉은 화염과 흰색의 최루탄 연기가 섞이는 장면을 분홍색으로 표현하며 이를 인간에 대한 애정이 공존하는 상징적 색채로 탐구한 작품이다. 〈마로니에공원 4〉는 마로니에공원을 찾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도시 공동체의 일상과 삶의 풍경을 담아냈다.

**함양아**(1968-)는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미술이론을 공부한 뒤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했다. 이후 서울, 뉴욕, 암스테르담 등을 기반으로 영상, 설치, 조각,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9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전》(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2008)과 《올해의 작가상 2013》(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3)에 참여했고 최근 《함양아: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아트선재센터, 서울, 2026) 개인전을 개최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1990년대 신세대의 새로운 작업 경향을 주목한 전시 시리즈인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믹서&주서》(1999)를 비롯하여 《노미네이트전》(2005), 《미디어 아카이브 프로젝트》(2009)에 참여했다.

작업 초기에는 시간의 흐름과 기억, 신체와 감각 등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는 영상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후 참여 관찰을 바탕으로 타인의 삶과 사회적 환경을 기록하고 이를 다큐멘터리와 픽션이 교차하는 영상 언어로 발전시켰다. 이동하는 삶과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 현실과 환상, 기억과 장소, 권력과 사회 시스템의 관계를 탐구하며, 영상 설치의 공간 구성과 다채널 프로젝션 등 매체의 실험을 지속해왔다.

〈제주도의 비너스〉(2004)는 작가가 타인의 삶을 참여 관찰의 방식으로 기록하며 현실과 환상의 관계를 탐구하던 시기의 작품이다. 관광마차를 끄는 인물들의 삶과 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상은 다큐멘터리적 기록과 서사적 구성을 결합해 욕망과 환상이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현실과 허구, 실재와 상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동시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질문한다.

**홍명섭**(1948-)은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했다. 1990년대 이후 베니스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를 비롯하여 《SeMA Gold 2012: 히든트랙》(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2) 등 주요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제4회 서울조각회전》(1983), 《30/40: 기하학이 있는 추상》(1987), 《디아나의 노래》(2001) 등 단체전과 ‘3월의 서울’ 동인전에 초대되었고, 개인전 《홍명섭: 수평에의 의지》(2004)를 개최했다.

작가는 1980년대 탈모더니즘 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주도했던 동인 중 하나인 ‘로고스와 파토스’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모더니즘 형식주의에 반하는 표현적 추상과 개념적 작업, 탈장르 미술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그의 개념적 작업은 회화와 조각, 설치를 넘나들며 조형언어와 공간, 신체 감각의 관계를 탐구했다. 특히 작품과 관람자의 만남을 ‘인연’과 ‘촉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종이·테이프·끈 등 가변적인 재료를 활용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작업으로 삼았다. 작가는 “본다는 것은 시지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행위”라고 말하며, 관람자의 몸과 감각을 작품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2004년 개인전 출품작인 <러닝레일로드>(2004)는 1982년부터 진행한 위상학적 공간운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작가에게 철길은 미지에 대한 동경과 이동, 만남과 헤어짐, 심리적 방황과 속도 등을 환기하는 모티프로 자리했다. 물체 하나 없이 검정 테이프 하나가 공간을 가로지르며, 반복적인 선과 철길의 궤적을 통해 관람자의 시선을 화면 밖으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몸의 이동 감각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간에 관여하는 일시적 상황과 작품의 일시적 현존이라는 화두를 제시한다.

**Kim Subeom** (b. 1964) studied art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a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 founding member of Boromkoji, the Jeju Minjung art collective in 1988, he has since been active chiefly through the 4·3 Art Exhibition and the Tamna Artists Association. He has been regularly invited to related exhibitions including *Jeju 4·3 Incident Art Archive: 30 Years of Struggles for Recollection* (Jeju Museum of Art, Jeju, 2017) and *Guardians of Memory*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2023). Working across print, painting, video, and photography, Kim collects and reassembles records of historical events and everyday life, exploring how personal and communal memory accumulates and comes to be shared.

*Gallery Goers* (2005) records the visitors and exhibition spaces Kim filmed during his visits to museums and galleries and was shown at ARKO Art Center in *Power Station* (2005) and *100 Daehangro* (2009). For some seven years, from 1998 to 2005, he documented with a camcorder the audiences and exhibition spaces of ARKO Art Center's curated exhibitions and of solo exhibitions by Sung Neungkyung, Min Joungki, Shin Hakchul, and others. The footage was placed on videotapes in a separate archive space, where visitors could choose and watch the tapes themselves. The work was thus presented not as a fixed object of viewing but as material to be freely selected and consulted, proposing a new way of seeing.

**Kim Eull** (b. 1954) was born in Goheung, Jeollanam-do, and studied metal craft at Wonkwang University before earning a master's degree in jewelry design from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Hongik University. Turning from metal craft and jewelry design to art in the mid-1980s, Kim Eull developed the *Self-portrait* and *Blood Stream* series, and from the 2000s, with drawing as the basis of his practice, began working across painting, objects, photography, and figures. He participated in exhibitions including *Running Machine* (Nam June Paik Art Center, 2013) and *Korea Artist Prize 2016*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16). He also won the thirtieth Lee Jungseop Art Prize [Lee Jungseop Misulsang] in 2018.

*Certified Copy of Cadastral Map* (2002) and *Forest Map* (2002) are part of *Mt. #113 Namchon-ri* (1996–2004), an installation shown in *Rolling Space* (2004), a curated exhibition at ARKO Art Center. Centered on the specific site of the family's ancestral burial grounds, the work presents traces of family history and the grounds of life and death as a single landscape. From this personal family history, the artist expands his inquiry to life, death, and universal questions of human existence.

Kim regards drawing as both an attitude and an ideology, likening it to hammering, the bodily action of making. This metaphor suggests an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and principles of drawing through an “awakening,” as if struck on the head with a hammer. *Drawing Machine* (2006), shown in ARKO Art Center's curated exhibition *Drawing Energy* (2006), embodies this view. When a visitor pedals, a hammer moves, and through a glass window the movements of miniatures inside come into view. The work thus presents drawing as a process combining the active work of the body with the motion of things, and as the primal energy that makes creation possible.

**Park Ki-won** (b. 1964) studied Western painting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thirteenth JoongAng Fine Arts Prize [JoongAng Misul Daejeon] in 1990, represented Korea at the Korean Pavilion of the 2005 Venice Biennale, and was named Artist of the Year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2010. Since the mid-1990s he has pursued installations that create new sensations and experiences through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material.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1991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1991),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City, the Space of Life* (1993), and *Rolling Space* (2004), and held the solo exhibition *Park Ki-won: Ruin* in 2006.

*Hot Place* (2004) was a large-scale installation presented in the ARKO Art Center exhibition *Rolling Space* (2004) and the collection holds the installation drawings and an acrylic box containing the materials used in the show. In this piece Park covered the gallery's walls and ceiling entirely in translucent golden vinyl, using the particularity of the museum space and an ordinary material such as vinyl to turn the minute changes caused by moving bodies and currents of air into elements of the work itself. In this way his installations, structured around the relationships between space, material, and the body, prompt a fresh awareness of space itself and alter how it is sensed and experienced.

**Park Hyesung** (1968–2019) was born in Seoul and studied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he performed magic at her 1998 solo exhibition at Gallery Hyundai, took part in *OFF & ON* (1991) and *Show Show Show* (1992), and participated in major ARKO Art Center exhibitions including *Art Museum in Image* (2000) and *Pairs* (2005). She won the twentieth Suk Nam Arts Award in 2000.

Park took magic and performance as her formal language, probing visual illusion and the viewer's experience. Fusing magical devices,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across media, she questioned the borders between reality and representation and art and popular culture. By incorporating the audience's participation and perception into the work itself, she widened art's modes of address while taking up gender, consumer culture, and other questions of her time.

*Golconda* (2000) is a video sharing its title with the signature 1953 painting by the Belgian Surrealist René Magritte, and its content calls his work to mind. But where Magritte's bowler-hatted men fall like rain beneath a blue sky, the protagonists here are women in glossy black bodysuits. Over a brief two minutes and forty seconds, these unidentified women stride through downtown Seoul before suddenly leaping skyward, staging the surreal within the real space of the city.

**Bae Jong Heon** (b. 1969) was born in Daegu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Gachon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e has held the solo exhibition *Bae Jong Heon: Naissance* (Daegu Art Museum, Daegu, 2016), participated in exhibitions including *Korea Tomorrow* (Sungkok Art Museum, Seoul, 2015) and *The Eleven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Atelier Hermès, Seoul, 2010), and won the Goam Art Award [Goam Misulsang] in 2014.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Arrow of Time—Entropy* (2000) and *Drawing Energy* (2006) and held the solo exhibition *MiJangJeSaek* (the clearing after the rain at Mt. Mijang) (2019).

Bae works from the relationships between objects and situations encountered in everyday life and the society around them. Early on in his practice he located everyday experience within a broader social context through text, drawing, photography, video, and installation. More recently he has turned to painting, taking as his subject the traces of nature erased or damaged in the urban environment.

*Concrete Farmers* (2006), in the ARKO Art Center collection, is an early project shown in *Drawing Energy*, drawn from the vegetable patch on the rooftop of the multi-unit house where he lived. Each weekend Bae grew cucumbers, peppers, and tomatoes, built farming tools, bought fertilizer, and recorded the crops' growth. Realized in video, drawing, and objects, the work presents this small act of farming within a dense concrete cityscape, showing how daily life and art come together through process.

**Song Sanghee** (b. 1970) was born in Seoul and studied painting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he has held the solo exhibitions *The Song of Byeongangsoe 2015: In Search of the Others* (Art Space Pool, Seoul, 2015) and *Homo Natura* (Seoul Museum of Art, Seoul, 2021), been invited to numerous group exhibitions, and received the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2008) and Korea Artist Prize 2017 from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t ARKO Art Center she participated in the *20th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1994), the *2005 Art of the Year Award Nominated Artists Exhibition* (2005), and *transPOP: Korea Vietnam Remix* (2007).

Song links the sacrifices of those cast out of history and society, and the traces of violence inflicted on them, to concrete historical events, tales, and myths. She works across video, installation, photography, and text. *Blue Hope* (2004) is a photographic work comprising three scenes centered on Wolmido. The first image tells of the legend of the faithful wife who, gazing out to sea from Wolmido for a husband taken to a foreign land, turned to stone. The second, a black-and-white photograph of the Incheon Landing from a Korean War archive, colorized and enlarged, shows US warships entering the waters off Wolmido at dawn on September 15, 1950. The third is a keepsake photograph of a bus conductress who lost an arm in an accident, taken in the 1970s against the Wolmido amusement park. Together, the three images evoke a hope that cannot be fulfilled; grafting wounded figures and a clear-eyed view of women's reality onto images of legend and war, the work renders historical fact in a visual language of her own.

**Rim Dongsik** (b. 1945) was born in Yeongi-gun, Chungcheongnam-do, and studied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fine art at the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Hamburg (HFBK Hamburg) in Germany.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including *Rise Up Rim Dong Sik* (Seoul Museum of Art, Seoul, 2020) and *The Man Lifting up Moss* (Gana Art Center, Seoul, 2023), and participated in major exhibitions including *The Time of the Earth*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21) and the 3rd Jeju Biennale: Flowing Moon, Embracing Land (2022–2023). He won the 5th Park Soo Keun Art Award in 2020. At ARKO Art Center he was invited to the 1st Exhibition of Korean Young Artist Association (1974), *Drawing Energy* (2006), and *100 Daehangro* (2009). His solo exhibition at ARKO, *Rim Dongsik Solo Exhibition* (2005), introduced his comprehensive nature-art practice through painting, drawing, and archive.

In founding the nature-art movement group Yatoo in 1981, Rim led the nature art movement in Korea, beginning with outdoor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Then, after his years abroad, he built an independent painterly world exploring the relation between nature and the human in life and art. Regarding nature not as an object of mere representation but as a living being that breathes alongside us, he has continually explored the life cycle of mutual coexistence through painting, drawing,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Giving Greetings to Bowing Flowers* (2003), shown at his 2005 ARKO Art Center solo exhibition, belongs to a series of the same name that Rim developed into painting from 1992, drawn from the nature-art performances of his Hamburg years. Through the act of greeting a flower face to face, the work expresses gratitude toward nature and a sense of communion between the human and wider world.

**Lim Minouk** (b. 1968) was born in Daejeon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Ewha Womans University before continuing at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and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in France. She has held the solo exhibition *Hyper Yellow* (Ilmin Museum of Art, Seoul, 2025) and participated in major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won the seventh Hermès Korea Missulsang in 2007, and was among the final four artists for the Korea Artist Prize 2012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t ARKO Art Center she participated in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Mixer&Juicer* (1999), part of a series spotlighting the new practices of artists who emerged from the 1990s, as well as in *Rolling Space* (2004) and the *2009 Media-Archive Project* (2009).

Working across video, installation, performance, sculpture, and sound, Lim has probed the historical memory,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s, and marginalized beings and voices arising from within Korea's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Moving across the borders of fact and fiction, human and non-human, memory and forgetting, she proposes new relations between sensation and narrative and is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Rolling Stock* (2003), shown in the *2009 Media-Archive Project* at ARKO Art Center, is a single-channel video made during her time with Pidgin Girok, the collective she formed with Frédéric Michon, remaking as a video a work originally produced in the form of a cultural guidebook for visitors to the Gwangju Biennale. Through rapid editing and musical rhythm it reconstructs the scenery and images that flit past the city, recalling the memories and existences left out of modernization and social change. This piece is one of her early video works that opens a view onto her central concerns with history, community, and memory.

**Chung Suejin** (b. 1969) studied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earned her MFA in Painting from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ince her 1999 solo debut at Sigong Gallery in Daegu s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Arario Gallery, Gallery Skape, and elsewhere, most recently *An Omniscient Artist's Perspective in the World of Form* (Lee Eugean Gallery, Seoul, 2021). She has participated in major exhibitions including *10 Years of Doosan Gallery New York: Decade Studio*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2019) and *Take My Eyes Off*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2025). At ARKO Art Center she drew notice as an artist charting an experimental, new current in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through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Mixer&Juicer* (1999), *Open Your Eyes* (2003), and *Chronicle of Images* (2008).

Chung gives form to the invisible structures of human consciousness, juxtaposing unlike objects and signs within a single frame to build a multidimensional pictorial world that generates new relations and layered meaning. *Untitled* (2002–2003), shown in *Open Your Eyes*, reveals this signature style: juxtaposing bottles, boxes, figures, and animals within one composition, it crosses reality with imagination. Through countless signs the work offers a space beyond perspective and the order of the real and discloses the workings of emotion and the unconscious.

**Jung Jungyeob** (b. 1962) was born in Gangjin, Jeollanam-do,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Ewha Womans University. She has recently held solo exhibitions at Stellar Gallery (2025) and GalleryMEME (2026), participated in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Gwangju Biennale and Busan Biennale, and, most recently, *Woman on the Boundary* (Jeju Museum of Art, Jeju, 2026). At ARKO Art Center her 2006 solo exhibition, *Jung Jungyeob: Be Erased*, presented drawings and paintings centered on beings excluded or unseen by society, such as women, laborers, migrant workers, and endangered life. Active in the 1980s art movement collectives Dureong and Gaetkkot, working on themes of labor and the lives of the people, Jung went on to join the Women's Art Research Society and the feminist art group IPGIM, taking women's lives, labor, and life itself as central themes of her work. Giving form to the resistance and beauty of fragile beings through drawing, printmaking,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she has taken her subject matter from things such as grain, wild greens, insects, and other living things encountered in daily life.

*Bat* (2006), shown in her ARKO Art Center solo exhibition, renders part of a bat—a marginalized, endangered animal—as Jung moves beyond a human-centered gaze, drawing on her sustained reflection on vanishing minorities and beings. Spreading and pooling red ink to convey a truth that being cannot hide, the work summons a sense of anger and resistance toward what is erased or denied.

**Choi Gene Uk** (b. 1956) studied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earned his MFA in painting fro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He won the Best Award at the sixteenth JoongAng Fine Arts Prize in 1993, and since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the United States Cultural Center in 1985 has held solo shows at the Kumho Museum of Art and Ilmin Museum of Art, participating in major exhibitions including *Gwangju Biennale: Stay of Execution* (2002) and *Zeitgeist Kore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3).

At ARKO Art Center, active in the Engagement and Réalité Seoul collectives, he participated in numerous editions of the Engagement Exhibition and Réalité Seoul, and was invited to the *B35-'90 Invitational Exhibition* and *Rolling Space* (2004); he also held the solo exhibitions *Choi Gene Uk Solo Exhibition* (1996) and *Choi Gene Uk Solo Exhibition: Love is Real* (2005).

From the 1980s Choi has explored contemporary society and everyday scenery through painting that reconciles subjective sensibility with the field and conditions of realism, building an original world of what might be called “sensory realism”—rendering the object before the eye with sensory immediacy. 232. *Beach—Studio* (2005), shown at his 2005 solo exhibition, layers a beach scene, the studio, and the painter’s own reflection in a mirror within a single frame, revealing the relations between reality and representation, observer and object.

**Choi Minhwa** (b. 1954) was born in Seoul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He received the eighteenth Lee Inseong Art Prize in 2017, held the solo exhibitions *CHOI Minhwa: A Thousand Detours* (Daegu Art Museum, Daegu, 2018) and *Choi Minhwa: Once Upon a Time* (Gallery Hyundai, Seoul, 2020), and participated in major exhibitions including *From SeMA GanaArt Collection: Regrettable Times*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8–2020). At ARKO Art Center he took part in the *Inaugural Exhibition of Korean People's Artists Association* (1995), an exhibition organized by a group associated with Minjung art; *Park\_ing* (2003); *transPOP: Korea Vietnam Remix* (2007); and the solo exhibition *Choi Minhwa: The 20th Century Series* (2007).

From 1982 Choi began using, in place of his given name, the pen name Minhwa (民花), meaning “the people are flowers.” Grounded in the Minjung art movement of the 1980s, he developed paintings that depicted the violence and social contradictions of modern Korean history and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through expressionist brushwork and intense color, portraying youth adrift in social reality through his early *Vagrancy* series and the *Pink* series. Since the 2000s he has continued to probe history and memory through the *Once Upon a Time* and *Remembrance of Twentieth Century Paintings* series. *Pink—Yangachi, Street Bums* (1993) and *Marronnier Park 4* (2003), both shown in the ARKO Art Center exhibition *Park\_ing*, exemplify his practice. The former work, part of the *Pink* series of the 1990s, renders in pink the mingling of a protest’s red flames and white tear-gas smoke, exploring the color as a symbol embodying human affection even amid conflict. The latter piece captures the everyday life and scenery of the urban community through the varied figures who visit Marronnier Park.

**Ham Yangah** (b. 1968) studied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 theory at its graduate school, and media art at the graduate school of New York University. Based across Seoul, New York, and Amsterdam, she has worked across video, installation, sculpture, and found objects. She received the top prize at Arts Council Korea's Art of the Year Award in 2005 and participated in *The Nin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Atelier Hermès, Seoul, 2008) and *Korea Artist Prize 2013*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3), and recently held the solo exhibition *Yang Ah Ham: Undefined Panorama* (Art Sonje Center, Seoul, 2026). At ARKO Art Center she participated in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Mixer&Juicer* (1999), a series spotlighting the new practices of the 1990s generation, as well as the *2005 Art of the Year Award Nominated Artists Exhibition* (2005) and the *2009 Media-Archive Project* (2009).

Her early video work explored inner life—time, memory, the body and its senses—before she turned to recording,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the lives of others and their social environments, using a video language crossing documentary and fiction. Drawing on her mobile life across different cultures, she has probed the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and society, reality and fantasy, memory and place, power and social systems, through spatial composition and multichannel projection.

*Venus in Jeju Island* (2004), from her period of recording others' lives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centers on the lives and dreams of figures who drive tourist carriages. Combining documentary record with narrative construction, it shows how desire and fantasy shape individual lives, probing where reality and fiction intersect and questioning the individual's existence in contemporary society.

**Hong Myung-seop** (b. 1948) was born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and studied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ince the 1990s he has participated in major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Venice Biennale, the Gwangju Biennale, the Busan Biennale, and *SeMA Gold 2012: Hidden Track*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2). At ARKO Art Center he was invited to the *4th Exhibition of Seoul Sculptors Society* (1983), *30/40: Abstraction&Geometry* (1987), and *Diana's Song: Digital Dreams, Analogue Desires* (2001), as well as the exhibition of March in Seoul, and held the solo exhibition *Hong Myung-seop: Horizontality* (2004).

Active in Logos and Pathos, a collective leading the new post-modernist currents of the 1980s, Hong pursued expressive abstraction, conceptual work, and genre-crossing art against modernist formalism. His conceptual work, sustained from the late 1970s, has moved across painting, sculpture, and installation to probe the relations between formal language, space, and bodily sensation. He understood the encounter between work and viewer in terms of “affinity” and “triggering,” taking the generation and dissolution of variable materials—paper, tape, string—as his subject. As Hong has said in describing his placing of the viewer’s body and senses at the work’s core, “seeing is not visual perception alone but a bodily act.”

*Running Railroad* (2004), shown at his 2004 solo exhibition, is grounded in a concept of topological spatial operation the artist has pursued since 1982. For Hong, the railroad track evokes longing for the unknown, movement, meeting and parting, psychological wandering, and speed. A single strip of black tape crosses the space without a single object, its repeated lines and trajectory extending the viewer’s gaze beyond the frame while drawing out a sense of bodily movement—raising the work’s transient presence and the momentary situations that engage a space.

